

지니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 아무리 그래도

다시 태어나서 세상을 다시 살 수 있다면이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단호히 거절할 것이다. 내 인생이 후회없이 완벽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생이 대단히 형편없었기 때문도 아니다. 그냥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역시 지금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비슷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또 다른 길이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굳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나는 한번쯤 남자로 살아보고 싶다. 여자로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무엇보다 남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남자 형제들이 있었고 지금도 남자 아이들을 셋이나 키우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존 그레이의 베스트셀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와 같은 책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그때 잠시뿐이었다. 요즘엔 아들 가진 부모들을 위한 책이며 강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딸로 태어난 엄마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들의 세계를 알려준다는 아들 연구소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

르겠다. 적어도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눈치다. 집에 와서 바로 적용해 보려 애를 쓰지만 결국 이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고 어느새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말이다.

엄마들이 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라는데 나도 백 번 동감한다. 엄마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생겨나기 때문이다. 엄마가 야단을 치고 있는데도 뒤돌아서면서 방금 지적받았던 똑같은 행동을 하고 끊임 없이 말도 안되는 말과 장난을 생산해 내는 통에 뒷목을 잡는 일이 부지기수다.

며칠 전 셋째가 숙제로 장래 희망에 대한 글을 써야 했는데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는 어른이되면 엄마처럼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 엄마를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아는 어이없는 발언에 일단 1차 황당함과 기분 나쁨을 한번 넘기고 물었다.

"왜? 그럼 커서 돈은 어떻게 벌려고?"

아이는 특유의 천진난만한 얼굴로 두눈을 반짝이며 "그냥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한다. 기가 차서 아무말도 못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백수 아들 뒷바라지 해주는 노년을 상상해봤다. 아무리 상상이라지만 충분히 끔찍했다.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시킬 생각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역시나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번 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 아이비 펜싱클럽

## IVY FENCING CLUB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Art of Fencing, Art of Life  
유럽에서 몸으로 하는 체스라 불리는 펜싱, 이제 플러튼에서 시작합니다.  
한인에게 경쟁력있는 운동 펜싱으로 인내심, 체력, 신속한 판단력을 기르고  
아이비 대학진학 가능성을 높이세요!

**Grand Opening**

- 전 국가대표 선수가 체계적으로 지도합니다.**
- 경기고, 한국체육대학 졸업
  - 청소년 국가대표
  - 90년부터 10년간 성인 국가대표
  -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 다수 수상
  - 2000년부터 5년간 서울 체육 고등학교 코치 역임
  - 2014년부터 4년간 미국 버지니아 Penta Olympic Fencing Club 코치

**미국 현지 아이비리그 대학에선 펜싱을 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펜싱은 더욱 현실적인 스펙이 됩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대학 수능시험(SAT) 다음으로 체육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들에는 유서깊은 펜싱팀이 있습니다. 펜싱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입시에 가산점을 줍니다. 펜싱은 빠르고 격렬하면서도 곧은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순발력과 집중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유럽 귀족들의 스포츠였던 만큼 상대에 대한 예의를 중시해 인성교육에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하체를 움직여야 하는 펜싱은 다리의 군살을 빼고 늘씬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며 순발력과 민첩성, 유연성, 균형감을 발달시키는 운동인 동시에 순간적으로 판단해야하는 '지적게임' 이기도 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인 펜싱으로 균형잡힌 몸매를 유지하세요.

**TEL: 714-449-0882 • 1807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5**  
**www.ivyfencingclub.com • ivyfencingclub@gmail.com**